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①

선경어는 박산 무이선사(博山無異禪師)의 어록이다. 박산 무이선사(1575-1630)는 중국 명나라 때의 조동종 승려로서 박산에 오래 주석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쳐온 당대의 고승이다. 여기 연재하는 선경어는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참선 공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매우 간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일독을 권하고 싶은 선가의 경책(警策)이다.

做工夫 最初要箇破生死心 堅硬看破
주공부 최초요개파생사심 견경간파
世界身心 悉是假緣 無實主宰
세계신심 실시가연 무실주재
若不發明本具底大理則 生死
약불발명본구저대리즉 생사
心不破 生死心既不破 無常殺鬼
심불파 생사심기불파 무상살귀
念念不停 却如何排遣 將此一念
염념불정 각여하배견 장차일념
作箇敲門瓦子 如坐在熱火焰中
작개고문와자 여좌재열화염중
救出相似 亂行一步不得
구출상사 난행일보부득
停止一步不得 別生一念不得
정지일보부득 별생일념부득
望別人救不得 當恁麼時
망별인구부득 당임마시
只須不顧猛火不
지수불고맹화불
顧身命 不望人救 不生別念 不肯暫止
고신명 불망인구 불생별념 불긍잠지
往前直奔 奔得出 是好手
왕전직분 분득출 시호수

做工夫 貴在起疑情 何謂疑情
주공부 귀재기의정 하위의정
如生不知何來 不得不疑來處
여생부지하래 부득불의래처
死不知何去 不得疑去處, 生死關竅
사부지하거 부득의거처 생사관규
不破則疑情頓發 結在眉睫上
불파즉의정돈발 결재미첩상
防亦不下 赴亦不去 忽然一朝
방역불하 진역불거 홀연일조
撲破疑團 生死二字 是甚麼 閑家
박파의단 생사이자 시심마 한가

참선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무엇을 의문이라 하는가. 태어나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가는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면 의문이 문득 일어날 것이다. 이를 눈썹 위에 두고, 놓아도 내려가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의문 덩어리를 깨뜨려버린다면 생사라는 두 글자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부질없는 것이다.

먼저 생사의 마음을 깨뜨려라
한 생각도 딴 생각을 낼 수 없다

참선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계와 몸과 마음은 모두가 잠시 인연을 빌린 것이라서 실로 주재(主宰)가 없다는 것을 굳게 간파해야 한다. 만약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큰 진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며, 생사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무상살귀(無常殺鬼)가 생각 생각에 따를 것이니 이를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오직 이 한 생각은 배우기 위해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삼아야 한다. 마치 맹렬한 불꽃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한 걸음도 헛되이 옮길 수 없고, 한 걸음도 멈출 수 없고, 한 생각도 딴 생각을 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구출해 주기를 바랄 수도 없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모름지기 사나운 불길을 돌아보지 말고, 목숨도 돌아보지 말며, 남의 구원도 바라지 말며, 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잠깐 그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앞으로 곧장 달려 나가되 달려서 벗어나야만이 뛰어난 솜씨이다.

做工夫 最怕耽着靜境 使人困于枯寂
주공부 최파탐착정경 사인곤우고적
不覺不知 動境人多厭 靜境人多不厭
불각부지 동경인다염 정경인다불염
良以行人 一向處乎喧
양이행인 일향처호훤
鬧之場 一與靜境相應 如食飴食蜜
뇨지장 일여정경상응 여식이식밀
如人倦久喜睡 安得自知耶
여인권구희수 안득자지야

참선하는 데는 먼저 고요한 환경에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없고 고적한 데에 빠져 깨닫지 못하게 된다. 시끄러운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요한 환경은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고 떠들썩한 곳에서 지내다가 한번 고요한 곳을 만나면 마치 꿀이나 엿을 먹는 것과 같아져서 사람이 마치 오랜 피로 끝에 잠자기를 즐기는 것과 같게 되니 어찌 깨달음을 얻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처음 먹은 마음으로

송암스님〈영산재보존회 총재〉

약력
- 1915년 서울 生
- 33년 영진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및 경성상업학교 졸업
- 33년 박운허스님을 은사로 봉원사에서 득도
- 34년 월하스님으로부터 범패 전수
-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 보유자 지정
- 영산재보존회 총재 추대
- 94년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학장
- 94년 옥관문화훈장 수상
- 현재 서울 신촌 봉원사에 주석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면 4시에 봉행되는 예불에 반드시 참례하고 합장정근을 하며 봉원사 경내를 순례합니다. 봉원사의 각 전각들을 순례하면서 서울 시내 요지에 이같이 공기좋고 물좋은, 전통사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닌 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구나 생각합니다. 봉원사에 참배오는 이들도 많고 아침저녁으로 봉원사를 경유해 산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봉원사가 유서깊은 역사를 지닌 절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89년 도선스님이 창건한 봉원사는 1880년 개화파의 선각자 김옥균 선생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며 갑신정변의 혁명동지였던 이동인스님이 5년간이나 주석하시며 갑신정변을 잉태케 한 요람이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내가 예전에 봉원사에 있는 영진불교전문강원을 다녔어요. 백초월스님이 강사를 맡았는데 당시 불교 3대 강사의 한분으로 치던 훌륭한 분이었어요. 김활란박사하고 자주 만나 독립운동 의논을 하곤 했던 독립운동가 였습니다. 한참뒤에 그 조카되는 이가 찾아와 초월스님을 독립지사에 올리려고 나하고 의논도 했는데 결국 못 올랐지요.

초월스님 머리에 일본 경찰에게 전기 찜질을 당해 생긴 큰 험자국이 있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늘 머리가 아파 두 손이 항상 머리에 올라가 있고 여름에는 모기가 새까맣게 붙어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는 아주 잘 가르쳤고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어요. 내가 스님에게 서장까지 배웠는데 내가 서장 나가다가 막히면 당신이 줄줄 외우며 설명해 주셨지요. 마포 극락암에 현기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초월스님 모시고 독립운동한 것이 드러나 결국 고문받다 죽었지요. 그 어른이 용산가서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객차 복판에다 붙였지요. 필적을 조사하다 초월스님이 썼다는 것이 밝혀져 곤욕을 치렀지요. 결국 청주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해방 두달전에. 참 아까운 인물이지요.

김구선생도 광복후 봉원사에서 머무르기 위해 여기 몇 번 왔었지요. 또 봉원사는 영산재와 탱화라는, 중요한 불교전통의식과 예술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본산입니다. 복 달라고 와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안다면 마치 내집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겠지요.

나는 봉원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고 85세가 된 지금도 봉원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봉원사 입구에 부도들 있는데 이월하스님의 공덕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하스님이 아니였던들 범음 범패가 이렇게 올곧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불교계에 끼치신 공덕이 사무칩니다. 지금이야 불교전통의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내가 왜정때 월하 · 벽해 두 어장스님에게 사사를 받을 때는 일인(日人)들의 제지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을 때만 해도 스님들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일반 사람들은 범패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재의식을 하나보다 하고 심상하게 보지만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재세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장엄한 불교의식입니다. 영산재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고 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니 그 봉행하는 뜻을 모르고는 동참해 보았자 헛 일입니다.

"영산재는 공연이 아닌 경건한 종교의례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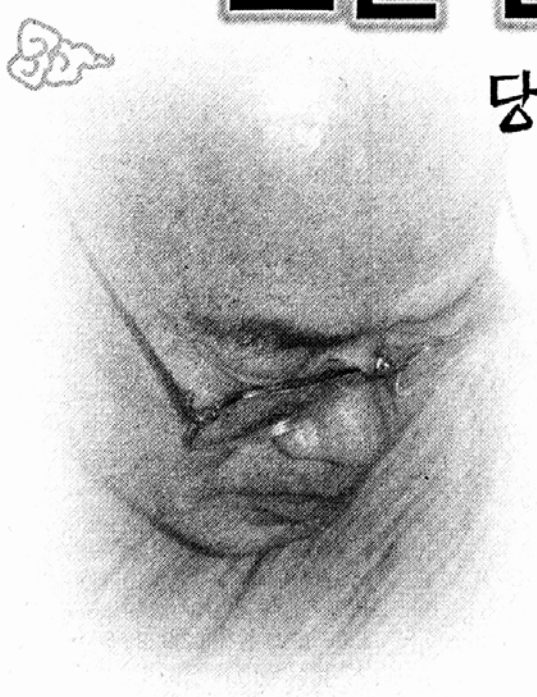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그 자애롭고 위엄있는 모습과 부처님전에 둘러앉은 여러 보살님들, 제자들, 설법을 듣는 진지한 대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산재란 그 영산회상의 법열과 환희심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산재는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나 의식을 보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산재를 구경거리 경연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의식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더러 무대에서 시연을 하지만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 의례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여대중들도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발심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합심발원을 한다면 불자들에게는 영산재에 참여하는 것이 수심(修心)의 기회가 되고 또 포교의 자리도 될 수 있겠지요. 사찰 경내가 아니라 무대나 노천에서 하더라도 야단법석(野壇法席)으로 여기고 청정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재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일체중생의 성불해탈을 염원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나는 한문을 배우다 14살때 신식 학문이 배우고 싶어 초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한문을 가르치고 이발기계로 스님들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받은 돈으로 수업료를 냈지요.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는 기억력과 열심히 한 탓인지 4학년때 월반을 해 졸업을 하고 경성상업고등학교에

내 영혼을 사로잡는 힘 문경새재 전화:0344)917-9224 팩스:0344)918-9224 전자우편:mbook@netsgo.com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물들이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종단분규로 인해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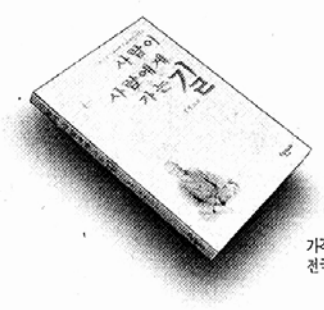
산 ,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커보이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송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셔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라면 더욱 큰스님이 육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7,500원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뜻 있는 주지스님들과 불자분들의 많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판매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출판 문경새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땅 불국토를 염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할인행사를 갑행합니다.